

序

孔子는 夏禮와 殷禮에 대하여 고증할 수 없음을 개탄하면서, 그것은 「文獻이 不足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고, 注釋者는 「文은 기록이며, 獻은 賢人이라」고 해석하였다. 한 王朝의 역사도 시대가 흐르면 資料가 散佚되고, 學者가 없어져서 아무리 聖人이라 할지라도, 이를 고증할 근거를 잃게 된다. 더구나 한 姓氏의 史蹟은 各 개인의 집안으로 傳承되는 것이므로, 保存의 完全을 기하기는 거의 不可能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를 수집하여 印行하는 것이 喫緊한 急務이다.

우리 蔣氏는 中國에서 周初부터 姓을 받았고, 漢晋以來로 歷史上 名人이 輩出하였으며, 高麗時代에 이나라에 들어와서 牙山으로 貫鄉을 쓴 이후 벌써 七八百年이 지났다. 譜牒에 의하면 高麗時代에 宗族에 오른 분이 여러분 계셨고, 高麗史등 正史에도 그 이름이 散見되나 詳細한 事蹟을 참고할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朝鮮朝以來 비록 華族의 級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科宦, 文學, 武勲, 隱逸 등 각 分野에서 名人이 나와 서로 계승하여 歷代로 國家와 民族에 이바지 하여 왔고 一門이 各地方에 散在하였으나, 모두 그 鄉中에서 望族으로서의 位置를 잃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우리 祖先이 謹愼과 淸儉으로 世德을 쌓았고, 學問과 義理를 傳家의 資産으로 물려주신 결과이며, 대대로 先訓을 公경히 받들어,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景仰하는 마음에 스스로 肅然함을 금할 길 없다.

우리 族譜는 벌써 壬亂以前부터 編纂된바 있었고, 現在 전하는 것으로도 正祖以來 大次의 修譜가 있어, 宗族사이에 源流 派系가 瞭然하며, 講信修睦의 道에 결함이 없었으나, 다만, 先賢 個個人에 대한 事蹟과 詩文을 모아서 編輯하는 일만 미쳐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事蹟이나 文集은 모두 單行本 혹은 寫本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한 책에 收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一門의 歷史는 勿論, 先賢들의 作品까지라도 한눈으로 살필 수 있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시급하다고 느꼈다.

그 동안 懸案中에 있던 始祖公의 墓所守護에 관한 巨大한 事役이 끝난 뒤에, 宗會에서 本書를 編纂하자는 論議가 提起되어 마침내 發刊委員會를 組織하여, 委員 諸位의 出力으로 發刊事業에 着手, 그間 여러 門中 元老를 비롯한 僉位의 積極的 協贊을 얻었고, 補充資料는 國史

編纂委員會를 비롯하여奎章閣、各圖書館과 研究機關의 아낌 없는 協助를 받아, 무릇 二個 星霜에 걸쳐 東奔西走하면서 가다스르 이제야 原稿의 大감을 보게 되었다.

本書의 名稱을 孔子的 語義에 따라 『牙山蔣氏文獻錄』이라 하였고, 收錄內容은 世譜의 概要、祖先의 勲功、行錄、그리고 碑碣、齋室、亭閣의 記文、遺稿와 宗親會 關係事項、그밖의 參考資料를 網羅하여, 現代人은 勿論、後進들에게도 一門의 概況을 一瞥할 수 있게 編輯하였다. 다만, 原文이 모두 漢文으로 되어 있으므로 現代人이나 後進들에게 讀解의 곤란을

덜어 주기 위하여 任昌淳教授에게 청탁하여 전부를 國文으로 번역하여 原文과 함께 싣게 하였다.

이제 우리는 本書를 通하여 先人들의 업적과 그 작품을 접할 수 있으며, 그분들이 이러한 遺産을 물려주기 위하여 苦心慘澹하신 거룩한 뜻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니, 우리 後承들이 특히 이 점을 想起하여 一言一行이 先人에게 累가 됨이 없이 할 뿐 아니라, 모든 方面에서 더욱 두터위 하며, 敬虔한 正성으로 先賢을 빛내게 할 수 있는 業績을 다시 쌓아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本書는 一門의 文獻이긴 하나 우리 民族史、또는 社會史의 一部이므로 一般에게도 多少 參考資料로서의 價値가 없지 않을 듯한 바, 江湖諸賢께서는 후 利用해 주시면 多幸스럽게 여기겠으며, 또한 試圖한 일이라 體裁와 內容에 있어 不備한 점이 많고, 訛誤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讀者 여러분들의 指正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時日關係로 脫漏된 資料가 많을 것으로 思料되는바, 訛誤된 部分과 未完한 資料 등은 後日 補完할 機會가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貴重한 時間을 割愛하여 翻譯을 맡아 주신 任昌淳教授、筆寫、進行을 맡아 주신 金學英氏、그리고 資料 提供과 助言을 하여 주신 宗親諸位의 精誠과 勞苦에 對하여 삼가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一九七六年 十二月 日

牙山蔣氏全國宗親會會長
牙山蔣氏文獻錄發刊委員會委員長

蔣

珩

在

牙山蔣氏世譜序（三癸巳譜序文一七七三年）

我東方巨室名家清門大族疇莫不有其譜而壽厥傳者乎第觀夫記肇祖系年代則豈不過自麗末未吾東數十世而已或不漏遠代而系族派則亦不踰三十世而止耳孰如吾蔣氏之貫粵在禹貢豫州之域而逮夫姬周周公之子伯禽弟伯齡之所封者哉歷漢梁唐宋而表儀朝著史不絕書獨纂秦元史不著焉彼則夷狄豈可以文獻之無徵據作今日之慨恨耶噫天運轉環時值聖宋蔣氏重榮碩果復生功於國而仕於朝則廼吾先祖也官至金紫光祿大夫神慶衛大將軍矣及至金胡之亂與吳林兩氏浮海東來舟泊于牙山州沿海村本國奏聞則自 皇朝命給食土故割牙山一面使之世祿蔣之爲姓者世居茲土因名曰蔣原村吳林二氏寂乎無聞而獨吾蔣村在是豈非功施社稷食報雲仍之著驗耶中間內外孫中赫葉榮達簪纓顯職載在世系列錄中要何必章章盡記乎一言而蔽之曰蔣氏周之裔也至于今幾百代而遺苗不絕譬諸數十世三十世僅錄者亦豈非餘慶無疆之驗乎於戲肇祖之忠孝成案曾現於瑚纓玉帶而中失於龍蛇之亂疑其造物之有猜而然耶抑由我後孫者不肖之致耶噫鄭公崑壽之爲蔣氏世德之譜又失於千百代擅守之餘何莫非吾宗中愧怍之甚乎然而譜牒之成族派之序有著於今者而始祖之所出瞭然在目遐裔之派系綿乎無絕竊念夫宛丘之族自異於凡羽之類而然耶椒聊之蘩有待乎盈升之時而盛耶嗚呼開吾譜卷者欲知時世可尋其生卒年月懸錄處矣欲詳夫屬外孫女壻及前後室者辨所出也則觀吾譜者孰敢不油然而睦同宗姻異姓親者哉

崇禎紀元後三癸巳孟夏後孫慶泰謹序

一七七三年에 발행한 세보의 서문

우리 나라의 大姓 名族을 치고 족보를 만들어서 오래도록 전하려 하지 않는 집안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시조와 연대를 보면 기껏해야 高麗末期까지에 소급하기에 불과하며 그것도 우리 나라에서 數十代를 더 올라가지 못하였고 氏族의 계보도 三十代 以上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蔣氏의 역사는 멀리 중국의 夏禹가 九州를 획정했을 때 豫州지역에서 시작되었고 周代에 와서는 周公의 아들이며 伯禽의 아우인 伯齡을 봉한 땅에서 일어났다. 漢、梁、唐、宋의 여러 王朝에 걸쳐 뚜렷한 시적을 가진 人物이 역사에 끊임없이 기록되었다. 다만 秦과 元代에는 歷史에 기록된 바가 없지만 저들은 오랑캐였으니 그때의 문헌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오늘날 유감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아아, 하늘 운수가 돌고 돌아 宋朝의 훌륭한 정치가 실시될 때 蔣氏는 다시 번영하여 國家에 공을 세웠고 조정에서 벼슬한 것이 곧 우리 先祖였으니 官職이 金紫光祿大夫神慶衛大將軍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金國의 침입을 당하여 吳氏、林氏와 함께 바다를 건너 우리 나라로 와서 배(船)가 牙山 땅 바닷가의 촌락에 닿았다. 高麗에서 이 事實을 中國에 보고한즉 中國에서는 그들에게 領地를 주라고 명하였다. 그리하여 牙山의 一部 地域을 때어서 세습적으로 지주가 되게 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蔣氏는 대대로 이 곳에 居住하여 蔣原村이라는 땅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으나 吳氏와 林氏는 전연 소식이 없고 蔣村만이 여기에 남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에 공을 세워서 子孫들이 그 보답을 받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中間에 内外孫들이 여러 世代에 걸쳐 훌륭한 벼슬을 지낸 사실은 족보에 소상히 기록되었으니 여기에 부잡하게 다 적을 필요가 없다. 한 말로 해서 「蔣氏는 周王朝의 後孫이다. 지금까지 몇 百代를 내려오는 동안 子孫이 끊이지 않았으니 저 數十世代

또는 三十世代 程度를 가차스로 대고 있는 사람들과는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선조께서 남기신 경사가 한없이 연속되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 할 수 있다.

아아, 始祖의 충효를 증명하는 유물인 珊瑚로 만든 갓끈과 옥으로 만든 腰帶가 있었으나 임진왜란에 없어지고 말았으니 조물주가 시기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우리 後孫들이 못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 아아 鄭公龜壽가 편찬한 蔣氏世德譜까지 數百年 동안 전해 내려오다가 잃어버렸으니 우리 宗中에서 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러나 이제 와서 족보가 이루어졌고 氏族의 계통이 밝혀져서 시조에게서 시작된 것과 後孫들의 功績이 중대됨이 없이 한하게 나타났으니 아마도 뽕황이란 일반 다른 새와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後孫들이 번성한 것이 좋은 시기를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아, 우리 족보를 열람하는 사람이나 그 時代를 알아보려 한다면 그 出生과 사망한 연월일이 기록된 것을 찾아 보면 될 것이요, 외손, 사위 또는 전후의 부인 關係를 상세히 살펴보면 그 연관된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족보를 보는 사람이 누가 감히 감동되는 심정을 억제할 수 있느냐? 일가 간에 화목하며 姓이 다른 친척과도 정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崇禎 己丑年 三 癸巳 (一七七三) 年 첫머름 후손 慶泰 삼가 씀

牙山 蔣氏世譜重刊序 (四甲申譜序文) (一八二四年)

修譜古也此爲管攝天下人心之一大本故程夫子嘗曰收宗族厚風俗須是明譜系而豈不義而程子言之哉人易世疎詠於陶詩親盡服盡發於蘇引愚於是尤有感焉旨從

先祖柴巖公慨然有志于斯嘗莅延日修明世系刊送各派而使後裔知源出於周而周源於邨歷漢魏唐宋浮泊東土而封牙爲貫猗歟盛哉上下數千百代宛在一部卷子則其尊祖重本之義叔族修睦之道顧何如而盛衰有時聚散多岐屢經兵燹譜失其傳幾於泯沒無聞而人莫知先系之所由出後派之所由分則不待親盡人易而其不爲塗人者蓋無幾宗中數賢輩有是懼焉以余爲柴巖公傍裔而必欲責其續成甚盛意也安敢以老耄辭謹考家傳譜牒傍求諸家姓譜刪補證証正其訛謬而牙山君以前中朝人雖不可考其下二十四世尋源溯流分行彙錄雖兒穉十歲以上無不畢載而吾孫有人年纔十二凡百云爲儼然有大人像焉才華絕倫大爲閥戶之望所以特書卷中別有私喜者而未及成帙奄見其夭萬事已矣吾於是書亦獨何心哉校印諸役任諸秀稷師赫鎮觀數三宗人方閑戶謝客直欲溘然無知遠近宗族不以吾耄妄而銜雪犯寒次第來慰功既成又強余一言以叙其梗槩嗚呼吾何顏於祖先而敢作并卷之文耶雖然義不可以私慟廢公議茲乃強力就審一開卷如復見祖宗儀範於千載之下而近而兄弟遠而宗族恰如居同一室融和樂則倘所謂觀吾譜者孝悌之心可以油然而生者非也耶然則譜系之明豈不有關於天下之爲人子孫者而其爲管攝人心之本者良以此也夫源遠而派長根深而枝茂理之常也粵在麗朝名公巨卿前後相望逮至昭代雖無大顯忠孝節行蓋未嘗乏人清白自厲行義著名則有參議公諱敦義才全文武望重山斗則有節制公諱處勇天資英敏志學不倦則有參奉公諱世璘勦滅土賊爲國際害則有平山公諱孝範自任運餉積瘁至死則有察訪公諱敬臣天性孝友隱德不仕則有參議公

諱瑛臨亂奮身誓心倡義則有柴巖公諱珩文學推重臨亂激義則有廣巖公諱啓賢策
勲辭職高蹈山林則有司評公諱希春矢死戡亂錄勲原從則有部將公諱希陽功存衛
社名載錄卷則有同知公諱後琬隱居行義誘掖斯文則有樂齋公諱邦翼躬通易學爲
世儒宗則有龜溪公諱時夏至如文章道學蔚然爲一世儒宗而再倡義旅退保 崇禎
日月則有釣耕公諱文益早服庭訓卒爲大儒而令人有祭社之議則有洗心公諱熙積
且以近世言之有永思公諱碩屋孝思不匱扁亭追慕曲溪公諱海鵬從師請益爲士友
所重荷潭公諱熙稷得於觀感篤學敦行噫積德累仁之驗閱千歲而尚有未艾餘慶洋
溢子姓行昌者何莫非祖先之澤詩不云乎無忝爾祖聿修厥德惟我諸宗盡各勉焉昔屈
左徒離騷太史公自序必先陳其世德吾於吾譜亦云爾

崇禎紀元後四甲申季夏下澣牙山君二十四世孫來周拜手謹序

一八二四年에 발행한 세보의 서문(一)

족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것은世上 사람들의 정신

자세를 올바르게 갖게하는 데 중요한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程子는 「일가들

의 마음을 모으고 풍속을 후하게하는 방법으로 계보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하

였다. 이유가 없는 말을 程子가 말한 리가 있는가? 또 「사람은 교제되고 세대

는 멀어진다」고 陶淵明은 詩로 읊었고 「촌수가 멀어지면 복을 입지 않게 된

다」고 蘇洵은 그의 族譜引에서 말하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더욱 느끼는 바가 있다. 나의從先祖 柴巖公께서 여기에 뜻

을 가지고 延日縣監으로 있으면서 世代의 系譜를 만들어서 이를 印刷하여 각 族에

발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선조가 멀리 周代에서 시작되었고 周代에 郤에서出發하여 漢魏、唐、宋을 거쳐 내려오다가 宋代에 이르러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牙山 땅에 領地를 받아가지고 本貫을 삼았다는 사실을 後孫 모두가 알게 되었다.

아아, 훌륭하다. 전후 수천백년의 歷史가 뚜렷이 책 한권 안에 들어 있게 하였으니 先祖를 높이 근본을 중이 여기는 취지와 일가들 정신을 결속시키고 친족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 얼마나 지극 하였던가? 그러나 한 동안 잘 살던 子孫들이 다시 미약해졌는가 하면 또 이리 저리 헤어져 모여 있지 못하였고 여러번 亂亂을 겪는 동안에 그 책마저 전하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선대의 내력이 어떻게 되고, 後孫들이 어떻게 잘라져 나왔는지 알 길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초수가 멀지 않고 사람이 교제되지 않기 전에 남이나 다름 없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 宗中에서 몇분들이 이에 대하여 걱정할 끝에 내가 柴巖公의 傍系 후손이라는 의미에서 꼭 나에게 계보를 다시 계속 완성하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취지가 매우 가혹한즉 어찌 나이가 늙었다는 핑계로 이를 사양할 수 있으랴? 삼가 집에 전해오는 譜牒을 근거로 하고 참고로 여러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각 성씨들의 족보를 구하여 보충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잘 못된 것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牙山君 이전은 中國 인물이었기 때문에 알아볼 도리가 없었고 그 以下 二十四代에 대하여는 系統을 밝히어 行列(行列)에 따라서 적어 넣는데 아이들 이라도 열살以上이면 빠지 않고 다 올랐다. 나의 손자인 有人이 나이가 열두살인데 모든 말과 행동이 으젓이 어른과 같았고 재주가 뛰어나 크게 집안을 일으킬 것으로 추망되었다.

그리하여 이 책에 따로 이름을 써넣으면서도 마음 속으로 남몰래 기뻐했었는데 이 책이 제대로 완성되기에 앞서 그만 갑자기 죽었다. 만사가 모두 그만이다. 「내가 열삼으로 이 책을 꾸며보느라 두었하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정, 인쇄의 모든 사무를 秀稷、師赫、鎭觀 등 몇몇 宗人들에 남기고 마침내 문을 닫아걸고 오는 손님을 사절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대로 지내다가 죽으려고 작정하였다. 멀고 가

까운 곳에서 일가분들이 나를 노망들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눈길을 바래고 전후하여 찾아와서 위로해주었고 주보의 일이 끝나고 나서 또 나에게 서문(序文)을 써서 그 경위를 서술하여 주기를 간청하였다. 아아 내가 조상에 대하여 무슨 빛으로 감히 서문을 쓸 수 있으랴? 그러나 나의 개인적 슬픔으로 공적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억지로 힘을 내어 책을 펴고 전체를 한번 살펴 보았다. 수천년 후에 앉아서 옛선조들의 모습을 다시 뵈옵는 듯 하였고 가까이는 형제 멀리는 일가간이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한 방안에 모여앉아 즐기는 듯 하였다. 「우리 주보를 보는 사람이면 호형과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옛말 그대로였다. 그러나 계보를 밝히는 것이 세상에 남의 자손된 사람들에게 관계가 큰 동시
에 그것이 「인간의 정신자세를 바로 잡는 데에 근본이 된다」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다.

저 물의 근원(根源)이 멀면 길게 흘러 내려가고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무성함은 자연의 이치다. 高麗시대에는 대신의 지위에 오른 훌륭한 분들이 전후연달아 있었고 李朝시대에 이르러 크게 드러나지는 못했으나 충신 호자 및 절의와 행의가 높은 분들이 끊이지 않았다. 청렴결백하였고 행의로 이름이 드러나 參議公敦義、文武의 재질을 겸비하였고 태산 북두와 같은 명망을 가진 節制公處英、천품이 英敏하며 學問에 힘쓴 參奉公世璘、지방의 비직을 토벌 섬멸하여 國家의 걱정을 제거한 平山公孝範、군량운수를 책임지고 힘에 지쳐서 생명을 바친 察訪公敬臣、호형과 우애를 신친적으로 다고 하였으나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은 參議公瑛、난리가났을 때에 몸을 내세워 군계 맹세하고 의병을 일으킨 柴巖公珩、을 사양하고 山林에 은거한 司評公希春、죽음을 각오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原從功臣이 된 部將公希陽、나라를 보호한 공로로 功臣錄券에 이름이 실린 同知公後琬、숨어 살면서 행의가 높아 후학들을 교도한 樂齋公邦翼、周易에 통달하여 학계의 으뜸이 된 龜溪公時夏와 같은 분들이 있고 이밖에도 문장

과도 학이 한 시대의 으뜸이었는데 의병을 두 번이나 일으키고 나서는 물러가서 明나라를 위하여 의리를 지킨 釣耕公 文益가 정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마침내 큰 학자가 되어 일반에서 사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려고 논의까지 한 洗心公 熙績근세에 와서는 永思公 碩屋는 호성이 지극하여 「追慕亭」으로 현판을 걸었고 曲溪公 海鵬은 선생에게서 수업하여 학자층에서 존경을 받았고 荷潭公 熙稷은 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학문과 행의가 높았다.

아아 오랜 동안 공덕을 쌓은 증거는 千年이 넘도록 아직 도 그치지 아니하여 남은 경사가 흘러 넘치고 자손이 번창한 것이 무엇보다도 선조의 혜택이 아님이 있느라? 詩經에 「너의 할아버지를 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덕을 닦으라」 하였다. 우리 여러 일가들은 각기 努力하기를 바란다. 옛적에 屈原과 司馬遷은 자기의 사적을 서술하면서 먼저 그 선대의 공덕을 진술하였다. 이 족보에 대하여

나도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진다.

崇禎紀元後 네번째 甲申(一八二四年) 六月下旬 牙山君 二十四代孫 來周 절하며 삼가 쓴

牙山蔣氏世譜重刊序 (四甲申譜序文) (一八二四年)

夫管攝天下人心須是明譜系收世族是蓋程夫子之言則原始反終永敦百世之誼者舍是譜何以哉鄰里居蔣君世春謄示其舊譜序文於余曰今方與道內僉宗氏設譜所於近邑剗之成在不遠願得一語以弁之余辭以非其人不得則因就考其舊序世系圖蓋蔣氏自姬周而金紫光祿顯于中華逮至封貫牙州著姓東土而顯秩華班珠貫綃錯赫赫爲羅麗巨族入我朝又有以清白名者以孝友稱者臨亂倡義衛社策勲者

前後蟬聯節制公之山斗重望德峰公之交遊畢齋廣巖公之山林高蹈司評公之戡亂
著勲部將公之錄勲原從特爲儀表於一世至若獎進後學多士矜式則有樂齋公窮通
易學燭理辨事則有龜溪公文章道學爲世儒宗而再倡義旅退保宗禎日月則有釣耕
公早服庭訓遂成大儒而令人有祭社之議則有洗心公永思公之孝思不匱扁其亭而
著世曲溪公之師門講道妄真公之誠孝感物一家之忠孝不絕歷世之雲仍相襲此嶺
以南蔣氏譜之所以作也余於是譜竊有感焉蔣之氏自華而東自牙而嶺本以一人之後
散居各處今以各處散居之人而同載一譜則其所以明系而收族者亦豈非合一宗管
攝處也耶余然後知源深者流大根固者枝蕃如使蔣氏各遵賢祖先之遺範在家而盡
敦睦之道出世而免忠孝之業方可以無負我修譜之苦心矣豈不韙歟友蔣斯文師
文逸民每以是役未遂爲恨今師赫世春等克追先志共成其事吁亦可嘉也已遂爲之
序

歲甲申端陽月通政大夫前行承政院右副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驪江李鼎秉謹撰

一八二四年에 발행한 세보의 서문 (二)
그 세상 사람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系譜를 밝히며 일가간의 마음을 통치해
해야 된다.

이것은 程子の 말이다. 이대로 본다면 先祖를 알고 後孫끼리의 관계를 밝히서
영원한 세대의 정을 두렵게 하는 방법이 족보를 제외하고 또 무엇이 있느냐?

나의 이웃에 거주하는 蔣世春君이 그들의 옛 족보의 서문을 나에게 보
이면서 「현재 道內에 있는 여러 일가들과 가까운 고을에 족보편집

사무소를 차려놓고 머지 않아 책의 출판이 끝나게 되었으니 책
머리에 한 말씀을 새달라.

하였다.

나는 「그런 글을 쓸만한 사람이 못된다」고 사양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할수 없으니 그 옛 서문과 世系圖를 참고하여 이 글을 쓴다.

蔣氏가 성을 갖게된 것은 中國 周代의 王族인 姬氏에서 나왔다. 金紫光祿大夫는

中國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온 분이요, 이때부터 본관을 牙州로 쓰게 되었다. 李朝에

들어와서는 또 清白吏 孝友가 독실한 분, 전란에 의병을 일으켜 衛社功臣에 봉한 전

후하여 이름이 높았다. 그 중에도 節制公은 높은 명망으로 德峰公은 估傳齋와

교유함으로 廣巖公은 학문을 지니고도 산림에 숨어 산 것으로, 司諍公은 난을 평정하여

國家에 공을 세웠고 都將公은 原從功臣에 참여 하였으므로 모두 한 세대에 뚜렷한

존재가 되었다.

그 밖에도 후진을 가르치고 학자들의 존경을 받은 樂齋公, 周易에 연구가 깊어

사리를 잘 알며 사무처리에 능하였던 龜溪公, 문장과 도덕이 일대 유화계의 스승이

되었고 두번이나 의병을 일으켜 明朝를 사모하는 의리를 지킨 釣耕公, 일찍부터 가정

의 교훈을 받들어 큰 학자가 되었고 지방 후학들이 제사를 함께 받들자는 공론까지

있게한 洗心公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았고 또 永惠公은 「孝思不墮」라는 명칭으

로 그 정자에 현판을 붙인 것으로 유명하였고, 曲溪公은 스승의 문하에서 강의를 담당하

였고, 志眞公은 지극한 효성이 동물을 감동시킨 사실 등등 이루 헤일수 없는 인물들로

서 충신과 효자가 끊인 적이 없이 대대로 계승되었으니 경상도 지방에 거주하는 蔣氏의

족보를 편찬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이 족보에 대하여 느낀 바가 있다. 蔣氏는 처음 中國에서 韓國에 왔고 牙山에서

경상도에 옮겨왔다. 본시 한분의 후손으로 각 지방에 분산 거주했는데 이제 각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같은 족보에 모아서 게재 하였으니 이것은 세보를 밝히며 일가

들을 결속시킨 것이며 또한 이것은 온 일가들의 정신을 바로잡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물은 근원이 깊어야 멀리 흘러나갈 것이요, 나무는 뿌리가 굳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진리를 나는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蔣氏들은 모두 훌륭한 선조의 교훈을 따라서 가정에서는 화목한 도리를 극진히 하며 사회에 나가서는 충성과 효도의 업적을 힘써야만 비로소 족모를 꾸미기 위하여 애는 노력에 보답함이 될 것이다. 어찌 가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 蔣師文은 숨은 선비였다. 항상 이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함을 한으로 여기더니 이제 師赫과 世春 등 여러분이 선대의 뜻을 잘 받들어 이 사업을 완성, 매우 훌륭한 일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이 서문을 쓴다.

甲申(一八二四)年 五月 通政大夫 前行承政院右副承旨兼 經筵叅贊官 春秋館 修撰官 驪江李鼎秉 謹啓

牙山蔣氏世譜重刊序

(壬申譜序文一八七二年)

余衰病無所事近於溪上修吾東方士族家姓氏源流書成總名之曰東國姓苑去其中有始祖之自中國來者及原是東方土着者以類而聚之潮厥而上之於是知牙山蔣氏之先本中國人而出於周矣歷漢晉唐宋世代相連累累若貫珠而至金紫光祿大將軍諱壻始浮海而東仍其後顯於麗竊數夫如是久遠而綿乎其無絕也日蔣君基秀守善以其世譜重刊事奉其門長老之命問叙於余余惟東方之以蔣爲姓者牙山一本而已而其來歷儘貴矣噫世族之家必有譜牒不止爲一家之美事也世道亦有賴焉程張夫

子之論備矣不佞何敢贅也第竊有所感於心者而爲蔣氏講之蓋譜稱金紫公在中朝有大勲勞嘗出戰敗帝命去檣而放舟海風濤中舟爲風所驅泊于東之牙因食采於牙今牙之蔣原村即其食邑也當刑而不忍於誅帝紀其功也當溺而不及於死天佑其德也有功有德不徒爲其保身立命之大件實事此其所以建立基本垂貽後昆至今六七百年未之替者也自是厥後世濟其美伊考其紀實文字則凡有德學義烈之有聞於世者磊落相望代不絕書雖其成就有大小淺深之不同然要其規模氣象各有所長而舊本諸序繁然表出以示其同出於一源者如此蔣氏之譜其在於斯而窮源而不失其所從來以及於三代以上之邈矣遠古者又是他譜之所未有也凡爲蔣氏之宗人者可不深惟遺風之有自而永念嗣承之爲榮感奮振厲而求以趾聞於前徽也耶然後方可以善慶積而內不壞於門戶忠義立而外有益於朝廷矣不然則後之人將按譜而責之曰何先世之賢而後世之墜也其不爲斯譜之羞耶凡爲蔣氏之子孫者盍相與勉之哉以是語二君而書以歸之

當宁九年壬申正月之望

通訓大夫前公忠道都事 豐山柳疇睦叙

一八七二년에 간행한 세보의 서문

내가 높고 병들어서 할 일이 없어서 요즈음溪上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양반들의 姓氏 유래에 관한 것을 모아서 편집을 끝내고 명칭을 「東國姓苑」이라 하였다. 그 중에서 시조가 中國에서 온 것과 당초부터 우리나라의 토착한 것을 나누어서 그 시조까지 소급해 올라갔다. 여기에서 牙山蔣氏의 선조는 본시 中國사람으로 周代

에서 나왔고 漢、晉、唐、宋의 여러 世代를 내려 오면서 代를 이어오다가 金紫光祿大將軍을 지낸 樛가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後孫이 고려 조에서 훌륭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오랜 역사 중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온데 대하여 감탄한바 있었다.

근일에 蔣君 基秀 守善이 그들의 족보를 다시 간행하는 사무로 그 집안 어른들의 명으로 나에게 서문을 써줄 것을 청탁하였다.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나라에서 蔣氏의 본관은 牙山 한 곳뿐이며 그의 내력이 정말 귀하였다.

아아 「양반 집」에 반드시 족보를 가지는 것은 그 한 집안의 종은 일일뿐 아니라 사회의 도의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은 程子와 張子가 벌써 말한 바 있으니 내가 더 말할 것이 없겠으나 다만 마음으로 느끼는 바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족보에 의하면 金紫公이 中國에서 큰 공로가 있었으나 한번 출전했다가 패전을 당하였다. 황제는 공에게 「노를 버리고 배를 풍량이 이는 바다로 떠가라」 하였더니 배가 파도에 밀려서 우리 나라의 牙山에 닿게 되었다. 인하여 牙山을 領地로 받았으니 지금 牙山의 蔣原村은 곧 그의 領地였다 한다. 형을 받았어야 할 터인데 참아 죽이지 아니하였음은 황제가 그의 공로를 인정하였음이요, 물에 빠지게 됐는데도 죽지 아니하였음은 하늘이 그의 덕을 도와준 것이다. 공로와 덕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보존하며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계가 될뿐 아니라 가정적으로 기분을 세우며 후손들에게 복의 러전을 열어 주어 이제까지 六、七百年 동안 끊임 없게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뒤로 자손들이 대대로 그 훌륭한 업적을 계승하였으니 그 사실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 덕망, 학문, 충의 등으로 세상에 이름난 분이 끊임 없이 대를 이었다. 그들의 해놓은 것이 크기와 깊이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각기 독자적인 특징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과거에 간행한 족보의 여러분들의 서문에서 뚜렷이 들어나어 그들이 모두 같은 선조의 자손으로 이렇게 훌륭한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蔣氏族譜의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며, 또

근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中國의 고대에 까지 소급될 것이니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다른 족보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일이다.

蔣氏의 여러분들은 선대에서 남겨주신 훌륭한 전통을 깊이 생각하고 그의 자손이 되었다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여 선대의 업적을 계승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할수록 대내적으로는 집안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충의의 공적을 세워서 대외적으로 국가에 공헌이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후대 사람들이 족보를 보고서 「선대에는 이렇게 훌륭했는데 자손들은 어째서 이렇게 못났느냐?」고 한다면 이 족보에 대한 수치가 되지 않을 것인가? 모든 蔣氏의 자손들은 서로 노력하기를 바란다.

두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그대로 써서 보낸다.

今上(高宗)九年 壬申(一八七二年) 正月 보름 通政大夫 前公忠道都事 豐山 柳 疇睦 申 肅을 지음

牙山蔣氏世譜重刊序(丙午譜序文 一九〇六年)

愚嘗聞中州士大夫之流寓東土者往往名門右族而東土前先祖鮮有傳者惟牙山蔣氏祖姬周而千百歲不替何其異也蓋自周公之子伯齡受封於蔣子孫因以爲姓歷春秋而始著於漢閱晉唐而大顯於宋有若金紫光祿大夫諱壻當金虜之亂浮海而泊于牙山以 皇朝之命受封于牙而遂爲東韓之族此牙貫之始也自是以後宗文克繁珪笏相承或以文章德望出爲王國之黼黻或以道義風節八爲鄉黨之冠冕祖貽孫承繩貫

珠聯與晉之王謝唐之盧崔等焉蓋赫赫甫烏甫不亦盛矣乎盛極而衰物之理也滄桑屢壇柯葉飄散花葉之落溷者有之枳橘之渡淮者有之親者漸至於疎近者漸至於遠邂逅之間種仁有黃太史益陽之數不有明譜繼收宗族之道則其何能攝散處之宗族乎周官奠繫之法蓋出於此而甲申之譜深得其遺意也雖然歷年已久矣後屬愈遠矣支派之中又有支派昭穆之下又有昭穆支之支派之派不可以不錄也昭之昭穆之穆不可以無載也於是後孫鎮宇甫與列邑諸宗盡然嘆傷更謀重鉸上而昭礪脉之不絕下而眎柯則之有在條理燦然脉絡分明儼然成一部序史嗚呼偉矣譜助之必於德山齋者蓋以此齋即德峯諱自元講道之墟也德峯公以佔俾先生石交見推於世則此地此事左豈非感發之一端歟今者柄魯華植二君以其門父兄之命請余以弁其卷者不佞受而閱之則前譜諸賢之述備矣無庸聖壘塹窈伏念光祿公之四世正祿公諱崇即我始祖義城君詹事公諱龍庇之玉潤也追惟往塵不無遼海之感則誼有不敢辭者抑又有一說焉顛木之檠春至則發榮濫觴之泉再集則盈溢有本故也神明之後理無不昌則蔣氏異日安知不勃然而再興乎惟諸公聿修而俟之

歲丙午端陽月前義禁府都事聞韶金道和序

一九〇六年에 발행한 세보의 서문

내가 들은 바로는 中國 인사들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산 사람들중 유명한 집안의 대족이 많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의 세대에 대하여는 그 내력을 아는 것이 적다. 그런데 牙山蔣氏는 周의 王室을 신조로 하여 천백년 동안의 역사를

계속하여 시술할 수 있으니 어찌면 그렇게 신기한가?

周公의 아들 伯齡이 蔣이라는 나라에 領地를 받은 뒤에 子孫이 그대로 蔣을 姓으로 삼고 春秋時代를 지나서 漢代에 비로소 크게 들어났고 晉과 唐을 지난 뒤에 宋代에 이르러 더욱 有名하였다.

金紫光祿大夫 婿가 金族의 族을 만나서 바다를 건너 우리 나라에 피난할 때

에 배가 牙山에 닿게 되었다. 中國의 命에 依하여 우리 나라에서 牙山을 領地로 주었다. 이때 부러 蔣氏는 우리 나라의 姓이 되었고 貫鄉을 牙山으로 쓰게 되었다.

그 後로 子孫이 번창하고 벼슬이 계속 되었다. 문장과 덕망이 높아서 나라에 나가서 國家에 奉仕한 분도 있고 인력과 절의를 숭상하여 地方의 지도자가 된 분도 있었다.

할아버지의 전통을 자손이 계승하여 대대로 빛나는 문벌은 晉代의 王氏, 謝氏 唐代의 崔氏, 盧氏와 같았다. 얼마나 성대하였는가? 그러나 극히 번성했다가 다시

숙으러지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다. 세상이 여러번 변하여 가지(枝)가 꺾이고 잎이 떨어져 흩어지고 꽃이 진홍 속에 섞이기도 하고 곧이 탕자로 변하기도 하였다.

친했던 사이가 차츰 성글어지고 가까웠던 집안이 점점 멀어져서 일가 안되는 동안에 黃太史가 蓋陽의 관식을 말하게 될 것이다. 족보를 밝혀서 일가

끼리의 마음을 결속하지 않는다면 각처에 흩어져 사는 일가들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으랴? 周禮에서 제보를 밝히는 방법이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甲申년에 주보를 편찬한 것도 이 취지를 잘 받아드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서 後孫들이 더욱 멀어져 갈래에서 또 갈래가 생

기고 子孫 밑에 또 子孫이 생기게 되었으니 갈래의 갈래도 기록해야 되겠고 子孫의 子孫도 세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後孫 鎮守씨가 여러 고을에 사는 일가

들과 이 사실을 걱정할 끝에 다시 간행할 것을 논의 하였다. 위로 혈통이 끊기지 않음을 밝히고 아래로 옛 주례를 본받아서 조리가 뚜렷하고 계통이 분명하게 만

들어 으젓하게 한 세족의 역사 한편을 이루어 놓았다. 아아, 정말 훌륭한 일을 하였다.

족보 편찬사무소를 德山齋로 정한 것은 이 재실은 곧 德峯先生 自元이 학문을 강의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德峯은 估儔齋先生의 친한 친구로 世上에 추앙을 받은 분이니 이 장소에서 이 작업을 수행함은 옛 어른에 대하여 한층 감회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栢魯와 華植 兩君이 집안 어른들의 명으로 나에게 서문을 써 주기를 부탁하였다. 내가 편집한 책을 받아서 읽어 보주지 난번 족보에 여러분들의 서술이 구비하였으므로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덧붙일 말이 없겠으나 다만 光祿公의 四代孫 正祿公崇은 곧 나의始祖인 義城君 詹事公 龍庇의 사위였으니 옛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감회가 없지 아니하여 의리상 사양할 수 없었다. 또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넘어진 나무에서도 봄철이 돌아오면 싹이 올라오며 조곰씩 흐르는 샘물도 비가 오고나면 천천히 넘쳐흐르는 법이니 그것은 근본이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분의 後孫이 잘되지 않을 리 없으니 후일에 蔣氏가 다시 번창하지 않을 줄 어이 알리오?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덕을 닦으셔서 그 날을 기다리기를.

丙午年 (一九〇六) 五月 前義禁府都事 聞韶 金道和 謹

牙山蔣氏世譜重刊序

(壬戌諸序文一九三三年)

大凡人有族家有來自昔伊然而合聚成譜所以追先系而敘彝倫也今牙山蔣氏以中州右族移寓東土者其來久矣世系繼述昭在舊譜謹按前後實蹟則周公封子伯齡於蔣其子孫因以姓焉歷幾世有金紫光祿大夫諱壻金虜之亂浮海東來至牙山而居之麗朝奏聞以 皇朝之命食邑牙而仍爲貫圭笏冠冕相接於百代德業文章名稱於一

世赫赫然彬彬焉本支克繁於鄉國遂爲吾東顯懿之閥吁亦盛矣自茲以往親者漸疎近者漸遠初以一人之身至於路人耳况桑海屢變野燹千劫往往文献蕩殘存者無幾不以修譜而明之則何以能收其散處之族乎大易所謂類族辨物二典所以親族敘倫之意盖出於此而甲子丙三譜之不容不作者也其間年稍久而代愈遠則人有存歿事有變改此俱不可以不記故後孫等圖所以重刊而敦議於華溪齋齋即二樂先生諱邦翼與弟將仕郎諱邦豪進士諱邦翰修教講學之所也此事之於此齋有感舊圖新之意而允合其規者歟潤植柄魯甫以門長業之命跋涉二百里與其族人祖永請文於不佞余不嫻於辭安敢弁其卷者第念脩途裏足有若不得請則不止又誼有所不敢辭者故撰次如右吾聞蔣氏之散在列邑者其麗不億而其中有隱德積行修文力學大有望於士類如盈科之水其源深而其流長向陽之木其根固而其枝達蔣氏之門將昌大如執左契矣

通訓大夫前行弘文館副校理知製 教兼 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西學教授
驪江李中久謹序

一九二二年에 발행한 세보의 서문

사람은 모두 소속된 씨족이 있고 집안에는 집안의 기록이 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족보를 꾸미는 것은 선대의 세보를 밝히며 윤리 도덕을 펴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牙山蔣氏는 中國의 이름있는 씨족인데,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된 것이 그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으며, 그 系譜의 유래는 옛 족보에 상세히 기록 되었다.

전후의 사적을 보면 周公의 아들 伯齡이 蔣이라는 땅에 봉한을 받아서 그子孫이
그대로 성을 삼았고, 여러代를 지나서 金紫光祿大夫 璿가 金나라 종족이 中國에 침입
한 날리를 피하여, 바다를 건너 우리 나라에 와서 배가 牙山에 닿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곳에 거주하였고, 高麗에서 이 사실을 中國에 보고하고 皇帝의 命에 따라 牙
山에 領地를 주어서 인하여 牙山으로 貫鄉을 삼게 되었다. 그로 부러 대대로 벼슬
이 계속되었고 德業과 문장으로 世上에 널리 알려져서 빛나는 역사를 가졌고 자손
들이 번창하여 마침내 우리 나라에서 이름 있는 성씨가 되었다. 뒤에 내려오면서
가깝던 사이가 차츰 멀어져서 처음에는 한 사람의 몸에서 나왔으나 이제는 서로 모르
는 사이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역사가 변천되는 동안 난리와 화재 등 많은 재
난을 겪어서 문헌을 잃어버려 알지 못함이나 하였으니 족보를 편찬하여 이를 밝혀
두지 아니하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일가들을 어떻게 한데 모을 수 있느냐. 周易
에는 「宗族을 分類하며 내용을 구별한다」 하였고 書經의 堯典과 舜典에서 「宗族을
친근히 하며 倫理를 펴나간다」는 뜻이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 말한 것이고 甲申, 壬申,
丙午年에 작성한 三次의 族譜도 이 때문에 만든 것이다. 그 뒤에 또 연대가 오래 경
과되어 사람도 출생과 사망이 달라졌고 사항도 변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모두 종합
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後孫들은 족보를 다시 편찬할 것을 華溪齋에
서 논의 하였다. 이곳은 二樂先生 邦翼이 그 아우인 將仕郎 邦豪, 進士 邦翰과 공

부하며 화도들을 가르치던 장소다. 이 건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은 옛 어른을
생각하며 새 일을 계획하는 취지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었다. 潤植, 柄魯 두분이 그
집안 어른들의 명으로 二百里 길을 걸어와서 나에게 序文을 지어 주기를 청하였다.
글에 능하지 못한 내가 감히 이 부탁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오마는 일부러 멀리서
왔고 또 사리상 사절할 수 없어 대략 이상과 같이 서술하였다.

내가 들으니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蔣氏의 수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퇴망과
화문으로 일반에게 명망을 지닌 분이 많다 한다. 肅寧의 물은 근원이 깊기 때
문에 멀리 흘러가며, 양지쪽에 선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한 것이다.

蔣氏의 가문이 앞으로 잘 되리라는 것은 증명서를 가지고 내용을 대조해 보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通訓大夫 前行弘文館副校理 知製敎 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 四學教授 驪江
李中久 삼가 씀

牙山蔣氏世譜重刊序 (乙未譜序文一九五五年)

家有乘族有譜皆所以尊祖先明世系也世代愈遠雲仍益繁則宗支之中又有宗支分
派之中又有分派親而近者居同鄉與隣邑遠而疎者在他道與殊域自親近至疎遠自
疎遠至胡越者其初一人也以一人之身分而爲百千萬億勢雖使然苟能修譜而明之
則某族之居某地某派之分某祖諱號爵謚德業文章或出或處或孝或忠昭載一譜開
卷瞭然誠合譜之敦史也奉審先世徽蹟則油然而出孝悌之心傍搜遠族來歷則藹然有
敦睦之風收宗族厚風俗之道舍是譜何以哉粵在甲午丙午四譜雖曰大同或居遠隔
不入未成完譜可勝歎哉今去壬戌又三十餘稔矣前譜童蒙今其有子有孫則修譜之
事可一日緩乎況今經亂之後人心靡定才俊之士懷四方之志奔走東西窮匱之人取
糊口之計難定朝暮若不及此時收合則散處宗族何以盡知亦安得合議乎列邑宗族
慨然乎是發論於慕雲齋墓享之席臘而開會于慶山德山齋不憚數百里之勞冒寒涉
險齋會無後之歎可見尊衛之誠出於彛表之所同也於是定所于佳川繼述齋實二月

之中旬也上系則一遵前譜下系則一依收軍畫而書夜而論花樹之樂融々然儘盛事也然而南北分裂西北兩道之族今未同譜是所慨恨勢也奈何事實速成未數月成正本付之鋟梓而僉議不可無弁文責余爲之余以不文何敢當是役正猶強雋僥以頁千鈞烏可免不勝任之歎哉第有一言凡爲人子孫者不惟系祖先之後而已其必修身勵行入而孝悌出而立揚善於繼述而無忝祖先墜家聲則即是能子能孫蓋相免施是爲序

歲乙未榴夏 後孫柄哲盥手謹序

一九五五年에 발행한 세보의 서문

집에는 집안의 역사가 있고 씨족은 씨족의 족보가 있다. 그것은 선조를 존중하며 계보를 밝히기 위함이다. 세대가 점점 벌어지고 자손이 번성해지면 종손과 지손에서 다시 종손과 지손이 생기고 갈린 파계에서 다시 파계가 갈라진다.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 같은 고향이나 이웃 고향에 살고 멀고 성글어진 사람은 다른 도나 먼 地方에 살게 된다. 친근한데서 소원한 사이가 되고 소원한 사이는 다시 멀로당로 앓는 모르는 사람으로 되었으나 당초에는 한 사람 이었고 한 사람의 몸에서 백 천 만 의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은 사리상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족보를 꾸며서 이를 밝힌다면 어느 집안은 어느 지방에 살고 어느 파는 어느 할아버지로 부터 내려나간 것이라든가, 어느 할아버지는 이름이 무엇, 벼슬이 무엇, 諡號가 무엇, 德行과 문장, 벼슬한 사람, 아니한 사람, 충신과 효자 등의 내력이 족보 한 책에 분명히 실려서 책만 펴보면 환하게 알게 될 것이니 정말 족보란 한 씨족을 친목하게 하는 중요한 역사다. 선대의 훌륭한 행적을 보며 효성을 바칠 마음이 저절

로 생각하고 면 일가들의 배력을 조사해보면 친근한 감을 자연히 갖게 될 것이니
 일가들의 정신을 다결시키며 풍속을 순화시키는 방법이 족보가 아니면 무엇으로
 할 수 있으랴? 甲、壬、丙、壬戌譜등 네차례나 족보를 꾸밈고 그것은 모두
 蔣氏 전체의 합동보이긴 하나 거리가 멀어서 미처 수록되지 못한 집안이 있어 완전한
 족보라고 할 수가 없었으니 유감된 일이다. 지금부터 壬戌년까지가 또 三十年이 되
 었다. 당시 족보 때에 아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들과 손자까지 두게 되었으니 다
 시 족보를 꾸미는 일을 하루라도 늦출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지금 난리를 겪
 고난 다름이라 인심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하여서 젊고 재주있는 사람은 먼 지방
 으로 헤어져나가고 빈궁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하여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키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 만일 이 시기에 족보를 만들지 못하면 흩어진 일가들을 어떻게 다
 알아낼 수 있으며 언제 또 다시 의견을 모을 수 있으랴? 여러 고을 일가들이 여기
 느낀 바 있어 慕雲齋에서 제향을 지내고 난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선달에 慶山
 德山齋에서 會議를 열었다.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數百里 밖에서 일제히 모여들어
 각후한 사람이 없었으니 先祖를 위하여 동족을 보호하려는 정성이 마음 속에서 울어났
 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편집사무소를 佳川 繼述齋에 설치한 것이 다음해 二월 중순이었다. 상대의
 계보는 전체적으로 과거의 족보대로 따랐고 후대의 계보는 들어온 자료에 의하였다.
 낮에는 사무를 보고 저녁이면 일가끼리의 정담을 나누어 매우 재미있게 지냈다. 그러
 나 나라가 南北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서북지방의 일가들은 이번 족보에 참여하지
 못 하였음은 여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사무가 빨리 진행되
 어 수개월도 못 되어 正本이 이루어졌다. 인쇄에 부치게 되었는데 모두들 서문이 없
 을 수 없다 하여 나에게 그 일을 맡으라 하였다. 내가 문장이 졸렬한 사람으로서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난쟁이에 천근이 되는 짐을 지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찌
 감당할 수 있으리오마는 다만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선조의 후계자가 될 뿐 아니라 반드시 행의를 두렵게 하고 인격을 닦아서 가정에서는

효성과 공경을, 사회에 나가서는 임신출세(立身出世) 하여 선대의 뜻을 잘 이
어 받들고 선조를 우대하지 않으며, 집안의 명성을 높이지 않으며, 이는
子孫된 도리를 완수하는 것이니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서
문에 대신한다.

乙未年 五月

後孫 柄哲 삼가 씀